

La Biennale di Venezia  
NO GENOCIDE PAVILION  
AT THE VENICE BIENNALE



아래 서명한 우리는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이스라엘을 제외할 것을 촉구한다. 예술계가 자르디니의 국가관 방문을 앞두고 준비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에 대해 잔학 행위를 지속하는 국가의 예술 플랫폼을 용납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 베니스 비엔날레에 대량학살 국가관은 없어야만 한다.

국제 최상위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을 대상으로 대량학살을 저지르고 있음을 공식 발표했다. 또한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스라엘에게 가자지구에서의 학살 행위를 중단할 것을 경고하는 [임시조치를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은 수개월, 사실상 [수십 년](#)에 걸쳐 계속되고 있으며, 동시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국제법 위에 있다고](#) 선언하며 [학살의 의도](#)를 [염치없게 선전](#)하고 있다.

베니스 비엔날레는 유럽중심적 국제 박람회 원형삼아 만들어졌으며, 이러한 지정학적 편견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비엔날레의 참여국가들이 자신이 저지른 잔학 행위를 인정할 것을 요구 받은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한 전세계적 비난과 보이콧 요구로 인해, 1950년부터 1968년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베니스 비엔날레가 전시 공간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배제되고 전시에서 제외되었다. 1968년 [유엔 결의안 2396호](#)에 따라 "인종차별주의 정권과의 교류"를 중단하는 공식 금지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남아공은 1993년 아파르트헤이트가 폐지될 때까지 비엔날레에 참가할 수 없었다.

주요 [국제](#), [팔레스타인](#) 및 [이스라엘](#) 인권 단체들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동예루살렘, 가자지구 점령(이 점령은 [1967년 11월 유엔 결의안 242호](#)에 의해 불법으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1948년의 국경 내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대우가 [잔인한 분리주의 체제](#)이자 반인도적 범죄라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이 막 시작되었던 2022년, 비엔날레와 소속 [큐레이터](#)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결권, 자유, 인간성을 [지지하는 수많은 공개 성명을 발표했다](#). "러시아의 용납할 수 없

는 군사적 침략"에 대한 비엔날레의 공개적인 비난에는 "그러한 끔찍한 침략 행위를 수행하거나 지원한 사람들과의 어떤 형태의 협력도 거부"하고 "러시아 정부와 어떤 자격으로든 연결된 공식 대표단, 기관 또는 개인의 행사 참석을 거부"한다는 선언이 포함되어 있었다.

반면 비엔날레는 팔레스타인인을 향한 이스라엘의 잔혹한 학살 행위에 대해 침묵해왔다. 우리는 이러한 이중 잣대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은 역사상 가장 강도 높은 폭격 중 하나다. 2023년 10월 말까지 이스라엘은 이미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폭탄의 위력에 상응하는 수 톤의 폭발물을 가자지구에 발사했다. 2024년 1월에는 가자지구의 일일 사망자 수가 21세기의 다른 주요 분쟁의 사망자 수를 넘어섰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파빌리온 큐레이터와 예술가들은 암흑의 시대에 예술이 필요하다는 일차원적인 성명서를 낼 뿐이었으며,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도 자유로운 표현과 창작을 위한 공간"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그들의 또 다른 이중 잣대라 할 수 있다.

예술은 그들이 주장하는 '공간'을 포함한 그 어떤 진공 상태에서도 창조되지 않으며 결코 현실을 초월할 수 없다. 완곡한 표현은 폭력이라는 진실을 대체할 수 없다. 이스라엘 국가를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모든 작품은 이스라엘의 대량 학살 정책을 지지하는 작품과 다름없다. 이스라엘에 의해 살해되고, 침묵 당하며, 투옥되고, 고문 당하고, 해외 또는 국내에서의 이주가 일절 금지된 팔레스타인의 시인, 예술가, 작가들에게 표현의 자유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에 의해 폐쇄된 팔레스타인 극장과 문학 축제에게 표현의 자유란 없다.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폐허가 된 가자지구의 박물관, 기록 보관소, 출판물, 도서관, 대학, 학교, 주택에 표현의 자유란 없다. 문화 학살이라는 전쟁 범죄에 표현의 자유란 없다.

이스라엘 파빌리온이 추진되는 동안,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서의 대량 학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하루가 다르게 증가해왔다. 이스라엘의 큐레이토리얼 팀이 동시대의 모성(motherhood)을 고찰하는 '퍼틸리티 파빌리온' (Fertility Pavilion)을 기획하는 동안 이스라엘 국가는 12,000명 이상의 어린이를 살해하고 의료 및 돌봄 시설로의 접근을 금지했다. 그 결과 팔레스타인 여성들은 지금도 마취 없이 제왕절개를 하고 길거리에서 출산한다.

국제 문화예술계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든 행위는 가자지구에서의 대량 학살 정책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

현재 비엔날레는 대량학살 아파르트헤이트 국가의 플랫폼과 다름 없다.

베니스에서 죽음은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상황유지를 거부한다.

베니스 비엔날레는 학살의 파빌리온을 금지하라.

Signed,  
ANGA - Art Not Genocide Alliance  
학살 금지 예술 연합

[서명자 명단](#)  
[ANGA 더 알아보기](#)

## 서명하기

\*\*\* 이 성명의 이전 버전에서는 비엔날레의 연계 프로그램에서 팔레스타인 예술가들이 제외되었던 상황을 시사했다. 미국 팔레스타인 박물관에서는 <<고국의 외국인 Foreigners in their Homeland>>이라는 제목의 전시가 금지되었던 반면, 예술가 + 동맹 x 헤브론(Artists + Allies x Hebron)의 프로젝트 <<사우스 웨스트 बैं크: 땅의 예술, 집단행동, 그리고 소리>>에는 팔레스타인 예술가들이 참여했다는 것을 밝힌다.